

북한의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 연구*

A Study on the Library Classification System of North Korean

남 태 우(Tae-Woo Nam)**

목 차

1. 서론	(사선: /)
2. 북한의 도서관 행정체제	4. 3. 2 분류기호의 확정
2. 1 국립중앙도서관	4. 3. 3 분류표에서 <선택>과 <반영>문제
2. 2 김일성 종합대학 도서관	4. 3. 4 서가와 목록에서의 구분 단계의 확정
2. 3 각 시(구역)·군 도서관	4. 3. 5 아동도서의 문제
3. 북한 도서관의 자료분류체제	4. 3. 6 매개 과학지식 부문들에 서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들에 관한 도서
3. 1 '도서 분류표' (군중 도서관용)의 탄생배경	4. 3. 7 사회과학 부문들에서 형 식구분의 문제
4. 군중 도서관용 '도서분류표' 체계 분석	5. 결 론
4. 1 주제분류 구성 체계	
4. 2 분류기호의 구성	
4. 3 분류표의 사용과 분류방법상의 문제점	
4. 3. 1 분류 기호에서의 대각선	

초 록

본 논문은 북한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편찬하여 1964년에 발행한 군중 도서관용 '도서 분류표'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북한에서 표준분류표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분류표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적 분석연구이다. '도서 분류표'의 입수가 그 동안 불가능한 관계로 남한에서는 전혀 연구되어진 바가 없다. 이 '도서 분류표'의 연구는 처녀림에 해당된다. 군중도서관용 북한의 '도서 분류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분류의 원칙, 학문의 분류 그리고 기호법의 원칙과 보조 기호법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그 분류법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북한의 문헌분류표가 남한에 전혀 소개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처음으로 소개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분류표에 나타난 주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학문적 발전 분화과정도 규명하였다. 또한 이것은 차후 문헌분류법에 있어서도 남북의 통일을 대비한 시도이기도 하다.

ABSTRACTS

This study aims to content analysis of Library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North Korean. Also This paper is analyze and overview to conceptual framework, notational system, principle of hierarchy in the North Korean's Library Classification System. Libraries usually arrange their collections according to the systematic structure of the library classification. A decimal point follows the third digit, after which division by ten continues to the specific degree of classification needed. This system is based on the social and communism thought. The libraries in the South and the North has different concepts, goals, information resources,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different ways of using them. Considering the practical aspects of the libraries and the reasons for their existence, they must structure the mutual cooperative system so as to minimize the shock when confronting the social changes, so-cold the national unification.

* 이 논문은 1999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접수일자 2000년 2월 28일

1. 서론

과학의 질서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 즉 첫째는 분할, 그룹 또는 부류이며, 둘째는 통일성 또는 질서이다. 그 목적은 하나의 전체이며, 그 과정은 부류를 정의하여 이 부류의 묶음을 전체로 모으는 것이다. 그 과정의 각각의 기능은 유사함에 따라 그것들을 함께 모으는 것이다. 과학의 분할과 그것들을 함께 모으는 것은 분류와 유사하다. 분류란 유사한 것들을 함께 모아 놓거나 좀 더 완벽하게 기술한다면 유사함(likeness)과 유사하지 않음(unlikeness)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실재하는 것을 유별화(sorting)하고, 그룹화(grouping)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분류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질서 또는 체계를 부여하는 것으로 무질서로부터 질서로, 카오스로부터 정연함으로의 회귀를 원하는 지적 작업이다. 그래서 인간은 고래로부터 무질서와 카오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기록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수많은 분류법을 고안하였다. 이러한 분류법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대개 체계적인 구조에 따라 그 정보자료를 배열하게 된다. 이는 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지적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이를 통하여 인간은 지적작업을 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학문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데올로기적 사상을 막론하고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한 북한의 균중도

서관용 '도서 분류표'도 분류의 목적과 효과적인 면에서 사상과 체제가 다르다고 해서 그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편찬하여 1964년에 발행한 '도서 분류표'는 북한에서 표준 분류표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분류표이다. 그런데도 '도서 분류표'의 입수가 그 동안 불가능한 관계로 남한에서는 전혀 연구되어진 바가 없다. 이 '도서 분류표'의 연구는 남한에서 처녀림에 해당된다.

그 동안 북한에서 발행된 여러 유형의 분류표가 존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잘 알려진 바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현재 북한의 자료분류 체계로 사용되고 있는 분류법은 성인공공도서관용의 1986년에 도서관 운영방법연구소에서 간행한 『도서 및 서지 분류표』와 1983년에 도서관 운영 방법연구소에서 간행한 학생도서관용의 『학생도서관 분류표』가 있고, 대학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과학도서관이 1980년에 발표한 『도서 분류표』를 사용하며 전문도서관용으로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만든 『중앙 과학 기술 통보사 분류표』가 사용되고 있다(陸榮用 1989, 78). 그러나 육영용은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한 균중 도서관용으로 1964년에 발행된 '도서 분류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다만 김일성 종합대학과학도서관에서 1980년에 발표한 『도서 분류표』와 서명은 같으나 발행년대(1980)가 서로 상치된 것을 보면 서로 다른 분류표인 것으로 보인다.

'분류표를 출판하면서'라는 서문에서 분류표의 탄생배경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먼저 분류표의 사용관을 범주화하고, 분류표의 기본 류문들에 대해서 검토한 기관은 '문화성 통일 분류표 작성 위원회'에서 토의 검

토되었으며, 참여기관으로는 북한에서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볼 수 있는 국립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5개 기관이 참여하여 분류항목들을 채택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 전문 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분류표는 도, 시, 군(구역) 도서관용으로 작성되었다. 분류표의 기본 류문들은 문화성 통일 분류표 작성 위원회에서 토의, 채택되었으며, 강, 목, 세목문들은 해당한 과학 연구 기관들과 전문 일군들의 방조하에 국립 중앙 도서관, 과학원 도서관, 김일성 종합 대학 도서관, 김책 공업대학 도서관, 평양 의학대학 도서관 일군들이 작성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1964, 2).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초안은 대중적인 토의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항목의 조정작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최종적인 초안은 문화성 도서관 학술위원회에서 비준하는 절차를 거쳤다. “분류표 초안은 여러 차례 대중적인 토의에 회부하였으며, 여기에서 제기된 의견들과 시험적인 분류과정에서 부딪친 문제들을 종합하여 초안을 작성하는 사업은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담당 수행하였다. 분류표의 최종적인 초안은 문화성 도서관 학술위원회가 비준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1964, 2).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행된 ‘도서 분류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분류의 원칙, 학문의 분류 그리고 기호법의 원칙과 보조 기호법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그 분류법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북한의 문헌 분류표가 남한에 전혀 소개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처음으로 소개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차후 문헌분류법에 있어

서도 남북의 통일을 대비한 시도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으로서 우선 두음법, 철자법과 띄어 쓰기에서 남북의 용법이 다르므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원본에 쓰여진 철자, 띄어 쓰기를 그대로 준용하였으며, 또한 참고자료나 2차자료, 3차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원 자료에 많이 의존하였음을 밝혀둔다.

2. 북한의 도서관 행정체제

북한의 도서관은 그 설치 목적이 당 정책을 선전하는데 있으므로 당의 선전물의 전시장 같은 인상을 줄뿐이며 소장 도서들도 김일성 위상화와 당 정책 선전 자료 등이 대부분이다. “도서관은 근로자들 속에서 도서선전과 책읽기 지도를 통하여 당의 유일 사상 체계를 확립하고, 혁명화, 근로계급화 하는 과정을 촉진하며, 그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상·문화·기술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힘있는 수단”이라고 조선문화어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도서관은 당의 유일 사상체계 확립과 근로 대중을 노동계급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독서의 궁극적 목적도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는데 두고 있어 사상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행정구역 및 작업반 단위로 도서관, 구락부, 수령연구실, 민주 선전실 등을 두어 활용하고 있다. ‘민주 선전실’이란 주로 협동농장 노동자 구, 동에 설치된 ‘대중정치 문화교양시설’로 당 간행물 등이 구비되어 있을 뿐이다. 즉 목적을 지향하는데 필요한

독서자료만을 비치하는 독서실이지 자료실로서는 기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도서관 체제는 일반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김일성 종합대학 과학도서관' 및 각 도·직할시 도서관과 200여개소의 시·구역·군 단위 도서관, 아동도서관, 독서실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김일성 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의 부속도서관과 특수과학연구를 하는 기관이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간이 독서실'이 마련되어 있다. 열람시간은 통상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도서관에서는 도서열람 외에 김일성 노작발표 모임, 노작해설강의, 토론회, 감상 모임회, 독보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및 장서는 1964년 기준으로 178개소에서 7,164,900여권이었으나, 80, 90년대에 들어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 다음에서는 북한의 대표적인 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2. 1 국립중앙도서관

1946년 10월 13일에 개관된 이 도서관은 평양 중구역에 위치하여 본래 해방전의 평양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한 것으로 625동란으로 70,500권의 장서가 소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전후에 3층 건물로 복구하여 1954년 8월 14일에 다시 개관하였다. 1958년에 신관을 증축하였고, 1963년에 7층으로 다시 개축하여 1,800평방미터의 규모로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을 만들었다. 이 도서관은 도서열람업무와 함께 대출, 참고문헌발행업무, 김일성 노작안내사업, 전시회, 혁명전통 교양자료 연구발표회, 감상회 등을 개최하기

도 하며, 전국의 시·군 도서관들에 대한 지도 사업을 조직·운영한다. 지원사업으로는 135개의 과학연구기관과 생산기업소에 매월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보', '연합통보', '신간통보'를 발간하며, 세계 100여개국 4,000여개 출판기관 및 도서관들과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요약하면 도서열람업무, 참고문헌 발행업무, 전시회 및 연구발표회, 지도사업, 출판사업, 자료의 교환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기능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6조에 의하면 업무 내용을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國內外 資料의 蒐集·정리·分析·보존·蓄積 및 公衆에의 이용
2. 國內資料의 제출관리
3.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의 流通
4. 각종 書誌의 작성 및 標準化와 國際標準資料番號制度의 운영
5. 電算化를 통한 國家文獻情報體制 및 圖書館協力網의 總括
6. 外國圖書館과의 協力 및 資料의 國際交流
7. 다른 圖書館 및 文庫의 業務·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에 대한 指導·지원
8. 讀書의 生活化를 위한 施策의 수립 및 실시
9. 圖書館에 관한 調査·研究
10. 圖書館 및 文庫의 職員에 대한 研修
11. 기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

이상에서 분석된 바처럼 북한보다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가 내포·외연적으로

깊고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최신의 문헌을 통해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분석된 데이터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면에서는 현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인 업무는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자료교환, 지도사업 및 지원사업, 출판사업 및 학술발표 등은 남·북한 공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업무내용이다.

북한의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는 1964년도에 152만권, 1971년에 227만권으로 발표되었으나 그 이후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 다음 <표 1>과

<표 2>는 남북한의 장서 소장현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상기 <표 1>에서 보는 바처럼 장서유형별로 현황이 발표되지 않아 어떤 특성으로 장서가 구성되어 있는지가 분석하기 어렵다. 또한 1973년부터는 장서의 증가량에 대해 공식발표가 없기 때문에 총 장서량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보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음 <표 2>는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현황을 1923년부터 1998년까지의 데이터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2>를 분석해 보면 1945년에서부터 1975

<표 1> 연도별 북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량

연도	장서량	비고
1950(4월말 현재)	110,000	11만권 중 고서 5,000권 포함
1955		마르크스-레닌주의 관계 서적 42,000권, 과학기술 도서 31만권, 소련, 중공의 원조도서 25만권
1957	455,100	37개 국어자료를 포괄, 한문 및 고서 23만권
1958		1,500권의 고서 증가 *중공, 소련으로부터 도서지원 받음.
1960	600,000	
1963	1,329,000	이중 특허자료 20만종, 고전 10여만부
1964	1,520,000	
1971	2,270,000	이중 김일성 노작 3만 2천부
1973~81	발표없음	

<표 2> 연도별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유형별 장서현황

연도	동양서	서양서	비도서	고서	아동도서	증가량	총장서량
1923-45	138,491	16,703	-	129,323	-	284,457	284,457
1946-55	19,800	8,958	-	8,483	2,287	39,528	323,985
1956-65	51,551	8,248	-	7,260	4,127	71,186	395,171
1966-75	126,780	30,231	9,566	33,080	7,776	207,433	602,604
1976-85	380,816	60,889	56,851	19,071	30,760	548,387	1,150,991
1986-95	957,096	89,493	307,454	17,459	53,630	1,425,132	2,576,123
1996-98	533,144	60,306	86,892	10,426	27,334	718,102	3,294,225
계	2,207,618	274,828	460,763	225,102	125,914	3,294,225	-
%	67	8	14	7	4	100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통계/ 자료조직과)

년까지 30년 동안에 2배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그 이후로부터는 매 10년을 주기로 2배씩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남북한의 자료보유현황을 <표 1>과 <표 2>에 나타난 단순 데이터만을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1971년까지의 북한의 장서 보유량과 1995년까지의 남한의 장서보유량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199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북한의 국립 중앙도서관의 장서보유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서부문에

에 있어서는 남한의 2000년 현재까지의 소장량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다. 즉 현재 2000년까지의 225,102권과 1963년까지의 336,500권과 비교된다. 고서에 대한 끊임없는 개발과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한 고서에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국보급 고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북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대표적인 고서리스트

資料名	著者	判別	刊年
大東輿地圖	金正浩	手寫本	1861년
東人之文	崔海	木版本	1855년
東文粹		木版本	이조초기
氣測禮儀	崔漢崎	活字本	1836년
妙法蓮華經諺解		木版本	1463년
圓覺經諺解		乙酉子本	1465년
金剛船若論		木版本	1242년
陳法(문중명선집)		木版本	1492년
東國兵鑑	훈련도감	훈련도감자	1593년~
	발행	活版本	1604년간
武藝圖譜紀志		木版本	1790년
鄉藥集成方	권채	훈련도감	1593년~
		活版本	1604년간
琴譜		手寫本	연대미상
饌進儀軌		活版本	

<표 4>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보 및 보물 리스트

자료명(Title)	책 수(Volumes)	등급(Class)
十七史纂古今通要	1	국보 제48호
釋譜詳節	4	보물 제523-1호
東人之文	1	보물 제712호
民間活字 및 印刷用具	1	보물 제865호
東醫寶鑑	25	보물 제1085호
諺解胎產集要	1	보물 제1088호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1998/99, p. 11)

그 외에 350여종, 32,000여부의 김일성 저작집과 단행본 및 노작물들이 26개국 25개 민족어로 번역하여 전시하고 있고, 이 도서관의 설비는 문헌열람실, 민족고전 열람실, 특수열람실과 시청각실 및 500좌석을 갖춘 '군중공작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국보나 보물급에 해당되는 자료는 다음 <표 4>와 같은데 북한의 귀중본보다 그 수량 면에서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2. 2 김일성 종합대학도서관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은 북한의 과학문헌기지의 성격을 갖는 대학도서관으로 1970년 10월 20일에 개관되었다. 장서는 과학관계분야 서적을 중심으로 약 200만권이 구비되어있으나 사상·문학·철학 등의 도서는 극히 적으며 '김일성 노작'과 공산주의 서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시설규모는 일시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자형으로 건축되었고 관내에서의 도서열람 외에 대출, 독자모임, 참고문헌 발행등의 사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일성주체사상의 교육을 벌이는 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대학에는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규모는 알 수 없고, 단지 주야간으로 사회과학대학에 신문도서관학과가 있어 여기에서 사서를 배출하고 있다.

2. 3 각 시(구역)·군 도서관

북한은 1961년에 '대중 속에 당·정권의 정책을 해설·선전하고, 혁명전통을 이어 받은

공산주의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일면, 선진 과학 기술지식을 습득 보급' 한다는 구실하에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모든 공장, 기업소에 도서관을 설치 운영할 것을 김일성 명령으로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모든 道·市(구역)·郡에 도서관이 설치되었으며 도시 중심구역들과 노동자구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중요한 기관·기업소·협동농장·작업반에도 도서관이나 도서실이 설치되어 있다. 도립도서관은 200여명을 일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들 도서관에서는 열람사업 외에 상호대출, 통신대출, 이동문고운용 등을 통하여 김일성노작의 보급을 꾀하여 유일사상 체계무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감상문 쓰기, 독서모임 및 독후감 쓰기, 연구토론회 등을 벌이고 있다. 도서관의 본질적 역할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당과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사상을 독서하고 이해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다.

3. 북한도서관의 자료분류체계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도서관이 사회적 장치로 발전됨에 따라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분류는 필수적이다. 분류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회의 발전과 이에 따르는 문화에 대한 요구와 서적에 대한 수요의 증가 또 이와 관련하여 발전되는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서 서적이 다량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 결과 장서를 조직 정리할 필요성이 생기었다. 장서를 조직 정리하기 위하여서는 도서의 분

류가 필요하다. 도서의 분류는 문화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서적의 생산이 어느 나라보다 앞서고 많았던 중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도서 분류의 첫 시도는 前漢 때에 劉向과 劉歆 부자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동양의 재래의 분류법에는 7분류법과 4분류법의 두 가지가 있다…… 7분류법 도는 4분류법은 오늘날의 서지학적 견지에서 보면 적지 않은 불합리성과 모순들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소련에서는 맑스-레닌주의 견지에서 새로운 분류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맑스-레닌주의적 견지에서 새로운 분류표를 작성하는 문제가 긴급한 문제로 일정에 올라 지금 연구중에 있다(국립중앙도서관 서지학부 1955, 70-73).

북한의 자료분류체제로 사용되고 있는 분류법은 성인공공도서관용의 1986년에 도서관 운영방법연구소에서 간행한 『도서 및 서지분류표』와 1983년에 도서관 운영 방법연구소에서 간행한 학생도서관용의 『학생도서관 분류표』가 있고, 대학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과학도서관이 1980년에 발표한 『도서 분류표』를 사용하며 전문도서관용으로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만든 『중앙과학기술통보사분류표』가 사용되고 있다(陸榮用 1989, 78). 그러나 육영용은 국립중앙 도서관에서 1964년에 편찬한 『도서 분류표(군중 도서관 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김일성 종합대학과학도서관에서 1980년에 발표한 『도서 분류표』와 서명은 같으나 발행연대가 서로 상치된 것을 보면 서로 다른 분류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편찬한 『도서 분류표(군중 도서관 용)』에 대해서 전

혀 언급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도서관운영방법연구소에서 간행한 도서 분류표는 차례표, 기본표, 보조기호표, 찾아보기, 사용세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표에는 책들의 사상, 정치적 내용과 과학지식 부문별에 따라 구분하기 위한 항목들이 논리적 순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 항목들은 그것이 기본표 안에서 차지하는 항목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따라 류문, 강문, 목문, 세목문으로 구분된다(백과전서 1983, 199).

3. 1 '도서 분류표(군중 도서관용)'의 탄생 배경

'분류표를 출판하면서' 라는 서문에서 분류표의 탄생배경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먼저 분류표의 사용관을 범주화하고, 분류표의 기본 류문들에 대해서 검토한 기관은 '문화성 통일 분류표 작성 위원회'에서 토의 검토되었으며, 참여기관으로는 북한에서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볼 수 있는 국립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5개 기관이 참여하여 분류항목들을 채택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 전문 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분류표는 도, 시, 군(구역) 도서관용으로 작성되었다. 분류표의 기본 류문들은 문화성 통일 분류표 작성 위원회에서 토의, 채택되었으며, 강, 목, 세목문들은 해당한 과학 연구 기관들과 전문 일군들의 방조하에 국립 중앙 도서관, 과학원 도서관, 김일성 종합 대학 도서관, 김책 공업대학 도서관, 평양 의학대학 도서관 일군들이 작성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1964, 2).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초안은 대중적

인 토의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항목의 조정작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최종적인 초안은 문화성 도서관 학술 위원회에서 비준하는 절차를 거쳤다. “분류표 초안은 여러 차례 대중적인 토의에 회부하였으며, 여기에서 제기된 의견들과 시험적인 분류과정에서 부딪친 문제들을 종합하여 초안을 작성하는 사업은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담당 수행하였다. 분류표의 최종적인 초안은 문화성 도서관 학술위원회가 비준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1964, 2).

그리고 분류항목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유.강.목으로 구분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세목까지 전개하는 비교적 단순한 분류표로 구성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표의 구분 단계를 전개함에 있어서는 류, 강, 목문까지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부득히 전개하지 않으면 분류에서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목문들에 대해서만 세목까지 전개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1964, 2). 이러한 비교적 단순한 분류항목의 전개는 출판환경이 열악하여 발행된 도서 수가 많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분류표의 총 분량이 197페이지에 불과하다. 물론 색인도 없는 불완전한 분류표이기는 하지만 현대 학문의 발전속도, 그리고 학제간적 학문의 추세에 비추어 보면 열악한 분류항목의 전개로 보인다. 그래서 색인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분류표에 대한 건명-자목순 색인은 사정에 의하여 후일에 발간할 것을 예견하고 여기에는 첨부하지 않았다”(국립중앙도서관 1964, 2). 라고 서문에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분류표에 대한 의견물과 분류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들을 국립 중앙

도서관 도서관학 방법부에 보내 주기 바란다”(국립중앙도서관 1964, 2). 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 개정판을 위한 준비작업의 한 관례이다.

4. 군중 도서관용 ‘도서분류표’ 분석

본 장에서는 군중 도서관용(공공 도서관을 지칭한 것으로 보임) ‘도서 분류표’의 내용구성체계를 살펴보고, 분류기호의 구성, 기호법의 체계를 분석하고 그리고 보조기호법, 마지막으로 분류번호 생성시에 유의할 점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 1 주제분류 구성체계

북한의 『도서 분류표(군중 도서관 용)』의 형태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총 197페이지로 목차에 나타난 내용은 크게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상에 나타난 분류표의 구성체제는 다음과 같다.

류문표	3
류강표	5
세목표	16
공통구분 기호	180
지리보조 기호	182
분류표 적용에 대한 간단한 해설	187
조선도서저자명기호법	197

목차에 나타난 바처럼 분류표 적용에 대한 해설이 앞부분에 있지 않고, 뒤에 위치하게 한

것이 특이하다. 그러나 편람이나 도구에 해당되는 문헌인 경우에는 해설이 정보로서 중요성과 그 이용빈도 때문에 앞부분에 오는 것이 관례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권말에 오게 한 것은 이례적인 문헌의 서지적 구성체계로 보인다.

‘분류표 적용에 대한 간단한 해설’에서 본 분류표는 우리 나라 도, 시, 군 도서관들에서 도서를 분류 순으로 배열하며 분류 목록을 편성함에 있어서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는 국가적 표준분류표로서 기능되기를 바라고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분류표의 류문 배열과 그 체계에 있어서는 맑스-레닌주의적 과학 분류 원칙과 분류체계에 적합하면서 과학 기술 발전의 제 성과를 반영하며 전면적인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 수행을 촉진하는 데 부합되도록 노력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 사상과 김일성 주체사상, 그리고 로동당에 대한 저술 등은 상위에 선치시키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사회주의에서 발행된 문헌분류표의 경우 일반적인 관례이다. 또한 과학을 인문학보다 선치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분류법과 유사한데 이는 유물사관적 사상에 근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군중 도서관용 ‘도서 분류표’에서는 학문 주제의 류문을 43개로 배정 전개하고 있다. 그 류문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15 맑스-레닌주의, 김일성 동지의 저작
- 21/23 맑스-레닌의 당, 조선 로동당
- 30 자연과학 총기
- 31 수학

- 32 력학
- 33 물리학
- 34 화학
- 35 천문학
- 36 지질, 지리과학
- 37 생물학
- 40 응용과학 총기
- 41 공업, 공학 총기
- 42 동력 및 전기공업, 동력 및 전기공학
- 43 전자 및 자동화 공업, 전자 및 자동화 공학
- 44 광업, 광업 공학
- 45 금속 공업, 금 속 공학
- 46 기계 공업, 기계공학
- 47/48 화학 공업, 화학 공학
- 49 립업, 목재 가공 공업
- 51 방직 공업, 방직 공학
- 52 식료 가공 공업
- 53 일용품 생산, 기타 경공업
- 54 인쇄 및 사진 기술 공학
- 55 수산업, 수렵업
- 56 건설, 건설 공학
- 57 운수, 운수 공학
- 60 농업, 농업과학 총기
- 61/62 농산
- 63 과수 원림
- 64 산림업, 산림학
- 65/66 축산, 수의
- 67/69 보건, 의학
- 70 사회 과학 총기
- 71 력사, 력사 과학
- 72 경제, 경제 과학
- 73 사회 정치 생활

- 74 국가와 법, 법률 과학
- 75 군사, 군사과학
- 80/82 문화, 과학, 교육 과학
- 83/84 언어학 문학 작품
- 85/87 예술, 예술 과학
- 89 철학, 철학 과학, 심리학, 종교, 무신론
- 90 총류

류문 설정에서 맑스-레닌주의, 김 일성 동지의 저작 류문과 맑스-레닌주의당, 조선 로동당 류문을 맨 첫 자리에 배정하고 있다. 그것은 이 류문들이 모든 과학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되며 실천 활동의 지침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분류의 관행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서자료 분류법에서도 모택동 사상을 A에 선행시키고 소련의 분류법에서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선행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국가의 존립근거를 이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음에는 맑스-레닌주의 과학 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자연 과학, 응용 과학, 사회 과학의 순서로 과학 지식 류문들을 배열하였다. 자연 과학을 선행시키는 이러한 학문분류의 시스템은 콜론분류법과 같으며, 또한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유심론적인 것을 배척하고 유물론적인 사상을 취하고 있으므로 자연과학을 인문과학보다 상위에 선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연 과학 부문에서는 수학을 처음에 놓고 다음에는 자연의 객관적 운동 법칙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과학들, 총체적으로 무기 자연

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과학들, 그리고 생명 자연계에 관하여 연구하는 과학들의 순위로 8개의 류문들을 설정하였다.

응용 과학 부문에서는 종래 이들 공학, 농학, 의학의 3개 류문으로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본 분류표에서는 이 부문의 출판물들이 각급 도서관들에서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개별적인 기술 부문들에 대한 당 정책과 우리 나라에서의 해당 부문들의 발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하며 독자들의 도서 선택과 도서관 내부 사업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학 부문을 15개 류문으로, 농학 부문은 5개 류문으로 전개하였다.

사회 과학 부문은 전체 10개 류문으로 구분하고 사회 발전 법칙에 관한 과학들로부터 시작하여 사상 및 사회적 의식에 관한 과학들의 순위로 배열하였다.

매개 기본적인 과학 지식 부문들과 공학 및 농학 부문들에서는 해당 부문 내의 모든 류문들 혹은 몇 개 류문들에 걸치는 내용의 도서들을 분류할 것을 예견하는 총기적인 류문들을 설정하였으며 분류표의 제일 마지막에는 종합적인 내용의 도서들과 유형별 출판물들을 분류할 것을 예견하는 종류 류문을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분석된 바처럼 류문의 전개는 43개류이다. 자연과학에 8개의 류를, 공학(응용 과학)에 15개 류문을 그리고 농학 부문에 5개 류문을 배정하고 있어 총 43개 류문중에서 과학부문에 무려 30개 류문을 배정하고 있다. 주제별로 구성된 류문은 엄밀하게 말하면 십진식 분류법이 아닌 10진식 분류법의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래의 학문의 분화를 대비하기 위해 공번호(gap notation)를 두고 있는데, 24-29, 38-39, 50, 58-59, 76-79, 91-99 들 24개의 공번호를 두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분류법의 특성인 맑스-레닌의 사상을 선치시키고 김일성 동지의 저작을 동류에 병치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자연과학을 상위에 놓고 있는 점등이 특성으로 분석된다. 자연과학을 앞에 놓은 점은 그들의 사상이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이론의 바탕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4. 2 분류 기호의 구성

분류 기호로서는 순수기호체계인 수'자(아라비아) 기호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분류기호의 조건인 순서성, 단순성, 간결성, 조기성, 전개성 등에서 그 우월성이 있는 것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련의 분류법과 중국의 분류법은 알파벳과 숫자의 혼합기호법을 채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순수기호법을 적용하고 있다.

류문은 두 자리의 아라비아 수'자, 강문은 세 자리의 아라비아 수'자, 목문은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수'자를 주면서 계단식 구성 원칙(계위력)에 적합하여 전개식 분류 체계와 10진 분류 체계의 우'점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난바 처럼 십진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열거식의 장점들을 적용시키기 위해 류문에 2자리 숫자를 채용하고 있다. 류문에 2자리 숫자를 적용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십진식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으로 보인다. 이 방법은 십진식을 응용한

100진식 열거식 류문의 전개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소수점은 분류 기호에서는 강문과 목문 사이에 점(·)을 찍게 하였는데, 이것은 기호로서는 의의가 없으며, 다만 분류 기호의 구분 단계들을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게 하며, 그를 읽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325.6》은 《삼백 이십 오 점 육》으로 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순수 십진식인 경우 유·강·목 다음에 세분으로 되는 단계에서 소수점이 오는데 북한의 분류방식은 강문과 목문 사이에 소수점을 주고 있는 것은 류목이 43개 항목으로 전개되어 순수하게 십진식으로 전개되지 않고 백진식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강문과 목문 사이에 소수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소수점만을 고려한다면 십진식과 동일하다. 이러한 소수점의 독법은 십진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례를 답습하고 있다.

4. 2. 1 보조 기호법

본 분류표에서 적용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보조 기호로서는 공통 구분 기호, 지리 보조 기호, 관계 보조 기호, 분석 보조 기호(전문 분석 기호)의 네 가지가 있다. 이러한 보조기호표의 채용은 KDC(표준 구분표, 지역 구분표, 한국지역 구분표, 한국시대 구분표, 국어 구분표, 문학형식 구분표, 언어공통 구분표 그리고 종교공통 구분표 등 8개의 보조 구분표)나 DDC(표준 세구분표, 지역 구분표, 문학형식 구분표, 언어공통 구분표, 인종·민족·민족군 구분표, 국어 구분표 그리고 인물군 구분표 등 7개의 보조 구분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석합성식 보조 기호법보다 협의의 보

조 기호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학문이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출판물이 방대하지 못하여 분류표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면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보조기호법을 적용시킴으로서 얻어지는 장점인 분류표 조직을 단순하게 하고, 동일한 기호는 가능하면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여 분류표 조직을 단순하게 하고, 조가성을 갖게 하여 기억하기 용이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4가지의 보조 기호표로서는 이러한 장점들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된다. 북한의 도서분류표에서 채용하고 있는 4가지의 보조 기호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공통 구분 기호

이것은 전반적인 류문들 혹은 몇 개 류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면서 분류 목록에서 동일한 유형의 도서들을 유일적으로 배열할 것을 예견하는 기호들이다. 이는 KDC나 DDC에서의 표준 세구분표에 해당된 것이다.

공통 구분 기호의 첫 부문에는 맑스-레닌주의 고전 저작들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들을 모든 류문들에서 구분, 반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분 기호들을 놓았으며, 그 다음에는 모든 류문들에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는 쟁마(테마)들과 문제들(방법론, 역사, 조직 등)에 관한 도서들을 구분 반영할 것을 예견하는 구분(□/△ 과학과 과학 연구 사업)들, 그리고 마지막에 출판물의 류형과 사명을 특징짓는 구분 기호(≡ 류형별 출판물)들을 위치시키고 있다.

공통 구분 기호로서는 국문 자음'자 기호를 주었다. 매개 자음'자 기호 내에서 더욱 세구

분하기 위하여 10진식의 아라비아 수'자 기호를 첨가하도록 하였다. 그 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례 : ㄱ 맑스-레닌주의 고전. 김일성 동지의 저작
 ㄱ 1 맑스 앵겔스
 ㄱ 2 레닌
 ㄱ 3 쓰딸린
 ㄱ 4 김 일성 동지

공통구분기호에서 배정하고 있는 보조기호와 항목은 14개로 다음과 같다. 공통 구분 기호는 DDC나 KDC처럼 자료의 체제, 물리적 형식 혹은 취급의 방법이 동일한 것에는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도록 준비되는 보조표이다. 즉 자료를 주제로 분류한 다음 필요시에 자료의 형식에 의해서 구분될 때 사용되는 보조기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제적 성격을 지닌 서술형식 혹은 내적 형식과 자료의 체제와 물리적 형식에 따라 구분되는 진형식(true form) 또는 외적형식을 구분된다. 다음의 보조 기호표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공통 구분 기호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ㄱ 맑스-레닌주의 고전, 김일성 동지의 저작
 ㄴ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
 ㄷ 과학의 철학적 제 문제, 과학방법론
 ㄹ 과학의 역사, 과학자 전기
 □/△ 과학연구사업 및 실천적 활동, 과학연구기관들과 그 활동

- ㄱ 과학연구사업 및 실천적 활동의 조직
- ㄴ 과학연구기관 및 단체
- ㄷ 경연, 축전, 경기, 올림피아, 관람
- ㄹ 간부 사업, 간부 양성
- ㅁ 과학연구 사업 및 실천적 활동의 방법과 기술, 생산 경험
- ㅂ 발명, 창의 고안
- ㅅ 과학 기술 통보, 과학 기술 지식 보급사업
- ㅇ 유형별 출판물

공통 구분 기호는 기본표의 분류 기호에 직접 붙여 쓰면서 그와 공통 구분 기호 사이에 점(·)을 찍음으로써 서로 호상 구분하도록 하였다. 예 : 《531.1. 일용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당과 정부의 결정》. 기호는 《오백 삼십 일 점 느(혹은 니은)》이라고 읽는다.

공통 구분 기호들은 위에서 든 예에서와 같이 기본표의 분류 기호들과 결합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공통 구분 기호만을 서로 결합하거나 또는 지리 보조 기호와 직접 결합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통구분 기호를 보다 세구분하게 된다.

예 : 《-.ㅅ 과학기술 통보 및 과학기술 지식 보급사업에 관한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 《ㄱ(1) 조선의 과학사》.

기본표의 강문 혹은 목문들에서 이미 공통 구분기호의 썬마들과 동일한 구분 단계들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공통 구분 기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그 밖의 모든 류문, 강문들에서는 이를 광범히 적용할 수 있고 일부 세목들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응용 과학 중기

부문에서는 《403 생산에서의 생산 기술적 제 문제들》이 있으며 이 강문의 세구분들은 분석 보조 기호를 적용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 분석 보조 기호의 세구분들에서 《-5 로동조직. 기술 기준과 표준 조작법》으로부터 《-8 작업장 조직. 생산 문화》까지는 공통 구분 기호《ㄷ5》부터 《ㄷ8》을 적용하지 않고 분석 보조 기호를 적용한다. 즉 광산 작업에서의 로동 보호, 안전 기술에 관한 도서의 기호는 《404.ㄷ7》로 하여서는 안되며 《440-7》로 하여야 한다.

공통 구분 기호를 적용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례들은 분류표의 《30 자연 과학 총기》부문에서 볼 수 있다. 공통 구분 기호에서만 ㄱ-ㅇ의 문자기호를 선행시키고 아라비아 숫자를 합성하도록 한 혼합기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2) 지리 보조 기호

지리 보조 기호는 기본표에서 지역별 혹은 나라별로 세구분되어 있지 않은 류문들을 지역 별, 나라별로 세구분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지리적인 개념과 관련된 이러 저러한 문제들에 관한 도서들을 더욱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지리 보조 기호는 지역 명칭과 국가들을 결합시켜 하나의 기호로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과학 지식 부문에 따라 지역적인 자료들을 류집하는 방법이 동일할 수 있으며 또는 연구 대상에 따라서 그것들을 지역 별로나 행정 지역 별 혹은 국가 별로 류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리 보조 기호표는 우선 크게 대륙 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지역

별, 국가 별로 세구분하는 원칙에서 구성되고 있다.

지리 보조 기호는 문자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아라비아 수'자 기호만을 사용하였으며 기본표의 분류 기호에 직접 붙여서 괄호() 안에 넣어서 표시한다. 예를 들면 《367 지역 별 경제 지리》에 지리 보조 기호를 적용하여 《367(0) 세계 경제 지리》, 《367(1) 조선 경제 지리》, 《367(3) 외국 경제 지리》, 《367(4) 아세아 경제 지리》, 《367(41) 중국 경제 지리》등으로 세구분할 수 있다. 다른 실례를 들면 《375(1) 조선의 식물》, 《375(11) 조선 북부 산악 지대 식물》등이다.

문학 작품 분류에서도 지리 보조 기호를 적용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의 분류는 국가 별-장르 별로 류집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처음에 문학 작품을 표시하는 분류 기호를 주고 계속하여 지리 보조 기호를 주며 맨 마지막에 장르(장르)를 표시하는 분류 기호를 주는 방법으로 한다. 예를 들면 불란서 문학 작품인 빅토르 유고 작 《레미제라블》의 기호는 《848 기타 개별적 세계 각국 문학》, 지리 보조 기호 《522(불란서)》와 장르(장르)를 표시하는 분류 기호 《24(소설)》을 연결시켜 《848(522).24》로 된다. 배열에 있어서는 우선 문학 작품 가운데서 지리보조 기호 별로 구분함으로써 동일한 나라의 문학 작품이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그 안에서 다시 장르별로 배열한다. 이처럼 지리 보조기호는 본표와 합성될 때에는 이와 같이 괄호속에 넣어 분류기호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다.

지리 보조 기호의 지리구역 구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0에 세계, 1에 조선을 위치시키고

10에 공화국 북반부, 15에 공화국 남반부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3에 외국(조선을 제외한)을 위치시키고, 4에다 아세아주, 5에 구라파주, 6에 아프리카주, 7에 아메리카주, 8에 호주 및 대양주, 도서를 그리고 9에 해양을 놓고 있다. 이러한 기호는 괄호속에 묶어 본표의 번호와 결합시켜 분류번호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다.

3) 관계 보조 기호

어느 한 과학 지식 부문을 다른 과학 지식 부문과 연결시켜서 그를 더 세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관계 보조 기호를 적용한다. 관계 보조기호는 본표와 본표의 분류번호를 합성시켜 사용할 경우에 응용되며, 관계보조기호로는 세미콜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 보조 기호로서는 세구분하려고 하는 과학 지식 부문의 분류기호에 중점(;)을 첨가하고 그 다음에 연관되는 과학 지식 부문의 분류 기호를 그대로 쓴다. 예를 들면 《901 서지 자료》부문에서 각이한 지식 분야의 문헌 서지들을 세구분하기 위하여 90의 총류에서 901 서지자료와 34 화학과 46 기계공업을 결합시켜서 분류번호를 생성하면 《901 : 34 화학 문헌 서지》, 《901 : 46 기계 공업 문헌 서지》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722.2 : 46 기계 공업 경제》등으로 공업 경제를 인민 경제 부문별 경제로 구분할 수 있다.

4) 분석 보조 기호 (혹은 전문 분석 기호)

이 기호법은 어떤 과학 지식 부문 내에서 그 지식 분야에만 전형적인 일정한 특징에 따라서 해당 과학 지식 부문을 더욱 세구분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이것은 KDC나 DDC의 800

문학류에서 문학장르에 따른 보조기호법처럼 특정 유내에서만 적용되는 보조기호법을 의미한다.

본 분류표에서는 주로 응용 과학, 언어학, 예술 부문에서 분석 보조기호를 많이 적용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개별적인 분석 보조 기호들은 그를 다시 세구분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875 영화》류문에서 영화의 종류별로 구성, 연출, 연기 등으로 세구분한 것이다.

분석 보조 기호로서는 수' 자기호를 적용하였으며 기본표의 분류기호에 짧은 줄로 연결시켜 표시한다. 예 : 《875.1-2 예술 영화 이론, 제작 기술》. 이처럼 북한의 도서분류표에서 분석보조 기호법은 응용과학, 언어학 그리고 예술부문에서 적용시키고 있으며, 기호는 하이픈으로 연결시켜 분류번호를 생성하게 되어 있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북한의 도서분류표에서 적용되고 있는 보조기호법은 크게 4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전주제분야에 적용되는 공통 구분 기호법과 그리고 지리보조 기호법, 관계보조 기호법, 분석보조 기호법의 유형이 있으며, 이들 보조 기호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호가 각기 상이한데 공통 보조기호에서는 (·)을 사용하고, 지리보조 기호법에서는 지리구분을 괄호()에 묶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관계보조 기호에서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본표의 분류기호와 구별되며, 분석보조기호에서는 사용되는 부호는 하이픈(-)으로 본표의 분류번호와 구별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처럼 보조기호법에서는 각기 다른 부호를 사용하도록 하여 콜론분류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호법을 차용하고 있어서 변잡성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통일성이 없다. 그러나 차별성은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본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호법은 순수기호법인데 반하여 보조기호법은 혼합기호법으로 되어있어 본표와 보조기호표간의 차별성은 있을 수 있으나 통일성, 간결성,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4. 3 분류표 사용과 관련된 분류 방법상의 문제점

본 항목에서는 분류기호에서의 사선(/)의 사용법과 분류기호의 확정방법 그리고 '도서분류표'에서 적용하고 있는 몇가지의 주기사항(선택과 반영), 서가와 목록에서의 구분 단계의 확정, 아동 도서의 분류문제와 별치문제, 매개 과학 지식 부문들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기계, 기구들에 관한 도서들의 분류기호 배정문제와 마지막으로 사회 과학 부문들에서의 형식 구분법을 분석하였다.

4. 3. 1 분류 기호에서의 대각선(사선: /)

분류표에는 류문이나 강문 혹은 목문들의 분류 기호에 대각선이 있는 것들이 있다. 예 : 47/48 화학 공업. 65/66 축산, 수의에서 보는바 처럼 분류번호 사이에 사선(/)이 사용되고 있다. 분류표에서 이 대각선은 해당 과학 지식 부문이 분류 기호 내에서 차지하는 범위를 표시하는바, 대각선에 의하여 표시된 분류 기호 그 자체는 분류에서 적용하지 않으며 거기에 분류하여야 할 경우에는 류문 기호 다음에 있는 강문 기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축산, 수의 일반에 걸치는 내용의 도서는 《65/66》에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650 축산, 수의 일반 문

제》에 분류한다. 자기 부문의 전문 과학 지식 류문들은 세분화하지만 기타의 과학 지식 부문들은 류문이나 강문 정도로 구분 단계를 한정하려는 전문 도서관들에서는 부득이 대각선이 있는 분류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대각선이 있는 분류 기호 전체를 적용하지 않고 대각선 앞 부분의 분류 기호만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음악 대상 도서관에서 화학 공업 부문을 류문에서 그 구분 단계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47/48》을 적용하지 않고 《47》만을 적용한다.

4. 3. 2 분류기호의 확정

서가배렬에서 분류-자모순, 분류-순서순 등 분류순 배렬을 적용하는 도서관들에서 분류 기호는 도서 기호의 한 구성 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도서를 분류할 때 우선 먼저 도서의 내용에 따라 그 도서가 서가에서 배열되어야 할 위치를 규정하는 분류기호(즉 도서 기호의 분류 기호 혹은 기본 분류 기호 또는 서가 배열 분류기호라고도 한다)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도서를 분류 목록에서 어느 과학 지식 부문들에 반영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분류 기호(보충 분류기호 혹은 목록 분류 기호 또는 목록 배열 기호라고도 한다)를 확정한다.

도서의 내용이 여러 과학 지식 부문에 걸쳐서 서술되었으며 분류 목록에서 매개 해당 과학 지식 구분 단계들에 그 도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주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분류 기호를 그 도서의 서가상 위치를 규정하는 기본 분류 기호로서 확정하며, 기타의

내용에 해당하는 분류 기호들은 보충 분류 기호로써 채택할 수 있다. 도서의 가장 주되는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그 도서에서 서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의 량 뿐만 아니라 해당 도서관의 특성과 독자들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몇 개의 목문에 걸치는 내용의 도서를 어느 한 개의 목문 기호로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강문 기호를 확정하여 주면서 목록 상에서는 필요한 목문 구분 단계들에 반영하도록 한다.

만일 몇 개 강문에 걸치는 내용의 도서로서 어느 한 개 강문 기호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류군의 가장 일반적인 강문 기호를 기본 분류 기호로 확정하면서 목록에서는 필요한 강문 구분 단계들에 반영하도록 한다. 즉 매개 류문의 강문 및 목문에는 《0 일반 문제》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도서들은 이 《0 일반 문제》에 분류한다.

4. 3. 3 분류표에서 《선택》과 《반영》문제

이 항목은 주기유형에서 분류번호의 옵션과 주제의 영향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주기 유형에서 소화되는 분류기호의 생성을 지시하는 주기사항이다. 분류표에서는 《선택》을 적지 않게 주고 있다. 이것은 분류표에서 동일한 과학 지식 부문 표제들이 동시에 두 곳에 포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체육 의학》은 《67/69 보건, 의학》류문의 《697.1》에도 있으며, 《828/829 체육 및 스포츠, 오락》의 《828.14》에도 있다. 그러면서 분류표에서는 《선택》을 주고 있다.

매개 도서관들은 이와 같은 분류 기호에 해

당하는 내용의 도서에 대하여서는 자기 도서관의 실정과 특징에 따라 기본 분류 기호를 어느 한쪽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상기 실례에서 의학 대학 도서관들은 체육 의학을 보건, 의학 류문에, 체육 대학 도서관들은 체육 의학을 체육 부문에 기본 분류를 확정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체육 의학에 관한 도서들이 서가에서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두 곳에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 분류는 목록 상에서의 반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한 쪽에 목록상에서 반영할 수 있다.

분류표에는 《반영》도 적지 않게 있다. 예를 들면 《133 김 일성 동지의 혁명적 활동》에서 《133.7 문예 작품(반영)》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 동지의 혁명적 활동에 관한 문예 작품들은 문학 예술의 해당 부문에 기본 분류하는 동시에 목록 상에서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기호에는 기본 분류를 하지 않으며 목록 상에서만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4. 3. 4 서가와 목록에서의 구분 단계의 확정

분류표의 분류 기호들은 매개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서 그대로 전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가에서 분류 기호를 적용하는 구분 단계와 목록에서 분류 기호를 적용하는 구분 단계들은 서로 다르게 확정할 수 있다. 서가에서의 지나친 세구분 단계는 도리혀 도서의 배열 및 선정에 힘들게 하기 때문에 서가 상에서는 목록 상에서 보다 분류 기호를 적용하는 구분 단계가 일반적으로 단순한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강연 자료는 분류 기호 《908》로서 서가 상에서는 집중하고 그 안에서는 저자

명 혹은 도서명의 종 자모순으로 배열할 수 있다. 그러나 목록 상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강연 자료들이 한 곳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보조 기호를 적용하여 세구분할 수 있다. 이 때 목록 카드에서의 기본 분류 기호는 《908》로, 목록 배열 기호는 예를 들면 《908:43, 908:358》등등으로 된다.

4. 3. 5 아동 도서의 문제

분류표에는 아동 도서를 《83/84 언어학, 문학작품》류문의 《844.28, 844.29》로써 한 곳에 집중하든가 또는 분류표에 의하여 내용 별로 분류하는 동시에 해당 분류 기호 앞에 아동 도서 기호 《o》을 주어 한 곳에 집중하기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o〉는 아의 초성을 의미한 것이며, 또한 아동도서의 별치기호로서 기능하도록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매개 도서관들은 아동 도서들을 그 내용에 따라서 성인 도서와 함께 매개 과학 지식 부문에 분산시키든가, 문학 작품 류문에 집중시키든가, 기호《o》으로써 따로 한 곳에 집중하든가 하는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즉, 아동도서는 분류와 서가상의 배열방법은 당해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4. 3. 6 매개 과학 지식 부문들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기계, 기구들에 관한 도서

분류표에 제시되고 있는 기계, 기구들을 제외한 매개 과학 지식 부문들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기계, 기구들에 관한 도서들은 기계 공학 부문에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학

부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도서의 제본에 사용하는 전문적인 기계들의 제작, 수리, 사용 방법 등은 《541.8 제책 기술》에, 가축 사료 절단 기계, 기구들의 제작, 수리 및 사용 방법에 관한 도서들은 《654.6 가축 사료》에 분류하는 등등이다.

그러나 류, 강, 목, 세목문들에 기계의 표제가 있을 때에는 그 곳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농촌 경리에서의 트랙토르의 리용에 관한 도서들은 《614 영농 기술》부문에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604.31 트랙토르》에 분류한다. 그러나 트랙토르는 농촌 경리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견인 기계로서 모든 부문에 쓰이는 기계이므로 그 제작은 《572.22 트랙토르의 제작, 수리》에 분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중기는 건설에서만 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민 경제 부문의 상하차 작업 혹은 수직 운반들에 리용되므로 《567.4 건설 기계 및 설비》의 《567.41 상하차 기계》에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466.2 기중기, 권양기》에 분류한다.

4. 3. 7 사회 과학 부문들에서의 형식 구분의 문제

사회 과학 부문들에서 지역별 또는 나라별 분류 기호들은 형식 구분을 적용하였다. 즉 사회 과학 부문에서 강문, 목문 혹은 세목문 분류 기호들을 마지막 수'자 기호들에서는 세계적 범위의 내용의 것은 3, 조선은 4, 소련은 5, 중국은 6, 기타 개별적 사회주의 국가들은 7, 기타 개별적 세계 각국은 8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844 조선 문학》, 《854 조선 예술》, 《8604 조선 조형 예술》, 《8614 조선 건축 예술》 등이다. 상기의 기호에서 4는 조선을 의미하는

조기성 기호로서 기능하다.

사회 과학 매개 류문들에는 세계적 범위를 포함시키는 표제들이 있으며 그 안에서는 사회주의 제 국가와 자본주의 제 국가로 구분되어 있다. 사회주의 제 국가 부문에는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들 또는 여러 개 나라들에 관하여 서술한 도서들을 분류하며, 자본주의 제 국가 부문에는 자본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들 또는 여러 개 나라들에 관하여 서술한 도서들을 분류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에 관하여 함께 서술한 도서들은 한 계단 위의 구분 단계 즉 세계라는 표제가 달린 분류 기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 제 국가 경제라는 도서는 《723.01》에, 자본주의 제 국가 경제에 관하여 서술한 도서는 《723.03》에,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제와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를 함께 서술한 도서는 《723.0》에 각각 분류한다.

이상에서 본 분류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류의할 몇 가지 문제들을 간단히 서술하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류표에는 더 전개하여야 할 구분 단계들이 허다하게 있다. 과학 전문 도서관들에서 도서뿐만 아니라 정기 간행물 논문까지도 분류하기 위해서는 더욱 상세하게 세구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류표에서 더 세구분되지 않은 분류의 구분 단계들은 매개 도서관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하게 자체로 잠정적으로 전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결 론

이상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자료분류체계로 사용되고 있는 분류법은 성인공공도서관용의 1986년에 도서관 운영방법연구소에서 간행한 『도서 및 서지분류표』와 1983년에 도서관 운영 방법연구소에서 간행한 학생도서관용의 『학생도서관 분류표』가 있고, 대학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과학도서관이 1980년에 발표한 『도서 분류표』를 사용하며 전문도서관용으로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만든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분류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육영용은 국립중앙 도서관에서 1964년에 편찬한 『도서 분류표(군중 도서관 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김일성 종합대학과학도서관에서 1980년에 발표한 『도서 분류표』와 서명은 같으나 발행 년대가 서로 상치된 것을 보면 서로 다른 분류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편찬한 『도서 분류표(군중 도서관 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북한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 분류표는 1964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한 군중 도서관용 '도서 분류표'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분류표 중 발행연도가 가장 앞선 분류표이다.

셋째, 이 분류표의 류문은 43개 주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개는 열거식과 100진식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기호법은 아라비아 숫자만의 순수기호법을 적용하고 있다. 류문의 분류기호가 2자리 숫자 구성되어 있다.

넷째, 이 '도서 분류표'에서 분류단계를 전개함에 있어서는 류, 강, 목문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부득히 전개하지 않으면 분류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목문들에 대해서만 세

목까지 전개하였다(예; 231.1 김일성 동지의 저작 전집). 문헌의 발행량이 많지 않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분류표상에 선치시키고, 이어서 김일성 사상과 조선 로동당에 대한 주제를 이어서 배정하고 있다. 또한 과학을 상위에 배정하고 인문학은 후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제배정은 대부분 사회주의 사회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43개 류문중 30개를 과학에 배정하고 나머지를 사회과학과 예술에 배정하고 있어 학문간 주제배정의 불균형이 심하다.

여섯째, '도서 분류표'에서 채용되고 있는 보조기호표는 4종류가 있다. 공통 구분 기호표(국문 자음자의 기호, ㄱ-ㅎ을 선치시키고 있다), 지리 보조 기호표, 관계 보조 기호표 그리고 분석 보조 기호표 등이다. 보조기호법은 더 개발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특이한 것은 사회과학 부문에서 지역별, 국가별 분류기호들은 형식구분을 사용하고 있다.

일곱째, 본표와 보조표를 결합하여 분류번호를 생성할 경우에는 혼합기호로 변하는데, 그것은 공통구분 기호에는 점(·)을, 지리보조구분의 경우에는 괄호()를, 관계보조 기호의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그리고 분석 보조 기호는 하이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본표의 경우에는 순수 기호법을 보조기호법은 혼합기호법을 적용하고 있어 일관성이나 통일성, 간결성 면에서 단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하고, 자료 데이터의 효율적인 호환을 위해서 공통된 문헌분류법의 제정과 사용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高哲義. 1987.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の圖書館事情”. 圖書館雜誌 81(8) pp. 455-456.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1992. 조선말대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국립중앙도서관 서지학부 편. 1955. 조선 서지학 개관. 평양, 국립출판사.
- 김순배. 1989. 북한의 교육실태(국통연 89-12-139). 서울,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 金順子. 1989. “朝鮮國家圖書館-人民大學習堂概況”. 福建圖書館學刊 39, p. 55.
- 김정애 역. 1994. 중국도서분류학의 문제점. 국회도서관보, 제31권 2호. pp. 47-61.
- 노문자. 1986. “서독의 국립도서관”. 도서관학연구지(숭의여자전문대학)11. pp. 30-49.
- 노문자. 1993. “통일독일의 도서관 통합과정”. 도서관문화 35(1). pp. 16-24.
- 리철화. 조선출판문화사(고대-중세). 199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박영호, 박종철. 1993.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93-29. pp. 83-129.
- 북한총람 : 1945-1982. 1983. 서울, 북한연구소.
- 백과전서 2. 1983.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 백과전서 6. 1984.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 신용철. 1990. “독일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통일문제연구 2(4). pp. 153-183.
- 송승섭. 1994. “북한도서관의 기능과 현황 상, 하”. 북한 1월호 : 152-159, 2월호 pp. 142-149.
- 양기백. 1991. 미의회북한관계자료 실태분석. 서울, 통일원.
- 양일운. 1982. “북한의 도서관”. 북한 126. pp. 108-119.
- 陸榮用. 1989. 9.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圖書館의 基本情況”. 圖書館理論 實踐 1期. pp. 78-80.
- 윤재근, 이상호, 박상천. 1991. 북한의 문화정보. 서울, 고려원.
- 정분희. 1993.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선말대사전. 199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조성진. 1992. “북한의 미술정책과 남북 미술교류 전망 연구”. 통일문제연구 4(4). pp. 221-243.
- 初中元. 1991. “朝鮮的 科學技術文獻 情報工作”. 山東圖書館季刊 第2期. pp. 18-19.
- 통일원. 1990. 내독관계발전사. 동서독 관계자료 3. 서울, 통일원.
- 통일원. 1992. 독일통일소사전. 서울, 통일원.
- 통일원. 1993. 남북기본합의서 및 분야별 부속 합의서 타결과정. 서울, 통일원.
- 鮑振西. 1992.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圖書館事業”. 圖書館建設 69. pp. 13-18.
- 한상완. 1994. “도서관분야의 남북간 상호협력 방안”. 도서관문화 34(6). pp. 5-15.
- _____. 1995. 광복 50주년 남북한 도서관문화의 이해. 도서관문화, Vol.36, no. 5. pp. 13-32.
- _____. 등저. 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

- 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
정보 학회지, 제30권 제1호. pp. 89-
123.
- 한승헌. 1993. "남북부속합의서에 따른 저작물
의 상호보호방안". 인권과 정의 197.
pp. 87-93.
- Biblitheksplan '73. 1973. Entwurf eines
umfassenden Bibliotheksnetzes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 : Deutsches Bibliotheksinstitut.
(DBI - Materialien, 106)
- Rechtvorschriften für die bibliotheksarbeit.
1992. Berlin : Deutsches Bibliothek-
sinstitut. (DBI - Materialien, 110)
- Yang, Key P. 1963. "Present Conditions of
Libraries in North Korea". Korean
Affairs 2(2) : 187-198.